

가톨릭마산

교구장 사목표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7)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전화 055)249-7072~3 팩스 055)249-7117
홈페이지 <http://cathms.kr> 메일 media2@cathms.or.kr
주소 (51727)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제2353호 2019.4.21. **주님 부활 대축일**



교구장 담화문 6-7면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알렐루야, 알렐루야!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총대리 박창균 신부, 이원태 신부, 백남해 신부, 강철현 신부, 이현우 신부
정연우 신부, 이우진 신부, 정연동 신부, 이정림 신부, 이동진 신부.

2019 엠마오 여행 (루가 24,13-35)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엠마오 여행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엠마오 여행은 세 개의 목적지를 가집니다.

여정 하나

말씀풀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루가 24,32)

여정 둘

순례와 미사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루가 24,30)

여정 셋

증언하기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루가 24,35)

말씀풀이

첫번째 :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곳은? (초상: **므리이**)

순례지

마산교구 순교복자 성지(신석복 마르코, 구한선 태대오, 정찬문 안토니오, 박대식 빅토리오, 윤봉문 요셉) 또는
하느님의 종(서응권 요한) 묘소



선물

선물 하나! 말씀풀이(5개), 순례지 사진(1장), 부활인사(1-3 문장)를 보내주신 분께(50분 추천) 우리농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물 둘! 말씀풀이(5개), 순례지 사진(1장), 부활체험(한글 10포인트 10-30줄)을 나누어 주신 분께(7명 선정) 우리농 상품권 또는 원고료를 드립니다.

응모기간 : 부활 제5주일부터 주님 승천 대축일까지

보내실곳 : samok2@cathms.or.kr 또는 전화

(전화번호는 부활 제5주일 주보에 공지합니다.)

발 표 : 성령 강림 대축일

● 12기 어머니학교



| 12기 어머니학교가 어머니학교 봉사회(회장: 문영미 마리 아주관)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수정트라피스트 수녀원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딸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혼인성사의 의미와 가족 간의 소통방법을 배웠다.

● 고현성당 사순피정



| 고현성당(주임: 송재훈 라파엘 신부)은 '함께'라는 주제로 사순피정을 실시하였다. 총 2회(3월 17, 24일)에 걸쳐 316명이 참석하였다. 임영준 베드로 강사는 둘 이상 함께했을 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 가음동성당 아치에스 행사



| 가음동성당(주임: 유해욱 요아킴 신부)은 3월 28일 성전에서 평화의 모후 꼬미시움 주관으로 2019년 아치에스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0여 명의 단원이 참석하였으며, 유해욱 신부는 훈화를 통해 레지오의 목적은 "단원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증거자들의 모후 브레시디움' 소속 백광열 도미니코 형제의 44년 근속을 비롯하여 30년 이상 근속한 12명의 형제·자매가 근속상을 수상하며 많은 축하를 받았다.

● 명서동성당 '빈첸시오회 기부마켓' 운영



| 명서동성당(주임: 최재상 마티아 신부)은 4월 7일 '빈첸시오회 기부마켓'을 운영하였다. 지난 3월부터 신자들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였으며 수입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기부물품은 신자들의 정성이 담긴 직접 만든 묵주 팔찌, 장아찌, 그외 생필품 등이다. 명서동성당 빈첸시오회는 2004년에 설립되어 20여 명의 후원회원, 30명의 활동회원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영적, 물질적 사랑을 나누고 있다. 회원들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찾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승호 메다르도 신부, 유엔평화유지단(UNPKO) 소속으로 레바논에 파병

현재 군종교구에 파견되어 사목 중인 최승호 메다르도 신부가 4월 16일 유엔평화유지단(UNPKO)소속으로 레바논에 파병되는 동명부대 군종참모로 떠났다.

군종교구는 해외파병 부대에 군종신부를 파견하는데 이번에 최 신부가 선발되어 파견되었다. 파병 기간은 약 8개월이며 레바논 현지에서 UN 파병 국가들과의 교류 및 종교(가톨릭, 불교, 개신교)관련 업무와 장병 위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군종교구로 파견되어 또 한 번 더 파병이라는 파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파병은 UN에서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외교적 배경을 가지고 추진되는데, 세계 곳곳에 파병되어 분쟁을 예방하고 시설을 재건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현재는 레바논, 남수단, UAE, 소말리아 등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곳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티로 지역은 마태오 복음 15장 21절~28절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서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말한 여인과 이에 대해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라고 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에 속합니다. 요즘은 시리아 난민 문제와 더불어 사랑과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그 주간이 성삼일에 부활대축일인데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향한 발걸음도 더 힘차게 내딛으려 합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신 주님 마음을 닮고 실천할 수 있길 청하며 함께 파병되는 군인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 축하드립니다. ”

심정현 요한드라살 신학생 부제서품

일 시 : 5. 5.(토) 16:00

장 소 : 성 베드로 대성전

주 레 : 페르난도 필로니 Fernando Filoni 추기경



천주교 마산교구

임마누엘 장학회

주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작년 한해 동안 임마누엘 장학회를 도와주신 후원자님 한분 한분께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회의 따뜻하고 든든한 아랫목 이웃이 되어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예수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 마산교구 임마누엘 장학회 이사장 총대리 박창균 신부

2018년 장학금 후원 현황 (2018년 12월 31일 분까지)

수입	합계	장학금 지출	적립 기금(잔액)
전년도 이월금 525,665,096원	735,888,665원	중학생 7명 4,200,000원	723,288,665원
예금이자 8,553,569원		고등학생 6명 8,400,000원	
후원금 201,670,000원			

권남익, 김계정, 김덕실, 김미영, 김연주, 김완수, 김정균, 김종협, 김형준, 김홍양, 대방동 성당, 박승엽, 박희석, 부산교구 빈민사목, 서영협, 신철수, 이갑순, 이승택, 이정철, 조영희 신부, 지무영, 익명의 후원자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

- 1 매년 3월 장학생 선발 요청 공문 지구별/학교별/교구 성소국 발송
- 2 추천된 학생들을 바탕으로 정기이사회에서 장학생 선발
- 3 중학생 연 60만원, 고등학생 연 140만원 / 3년간 지원
- 4 매년 14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후원 계좌 안내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행)

국민은행 651-01-0800-750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다시 한 번 장학 사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마산교구에서 운영하는 임마누엘 장학회는

故 박주선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기부하신

기금을 바탕으로

1996년 1월 4일 설립되었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당이나 이웃에 생활의 어려움으로 공부하기 힘든 학생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장학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와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돕겠습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임마누엘 장학회 055)249-7016, E-mail : mssamu@hanmail.net



2019 주님 부활 대축일 담화문



“평화와 용서”

사랑하올 교형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길 기원하
며 기쁨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하고 말
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예수님 당시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물(오아시스)
을 두고 다툼이 많았던 근동의 유목 민족에게는 싸움 없는 ‘평화’(shalom)가 인사말이었습
니다. 안개가 자욱했던 영국 해안에서는 ‘좋은 아침’(good morning)이 자연스러운 인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외세의 침략과 6·25를 전후하여 좌·우익의 싸움이 치열했던 탓으로 밤
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인사말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평화’, ‘좋은 아침’, ‘안녕’이라는 각기 다른 나라의 인사말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뜨거
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 미세먼지, 그리고 북핵문제와 함께 짝 갈라진 진영논
리에 갇혀 안녕치 못한 나날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불편하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정부 수립, 그리고 6·25동란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줄
알았던 이 이념 논쟁과 그에 따르는 조금은 낯선 역사이해(歷史理解)가 다시금 우리 사회를 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상 고요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공동체 안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적잖은 어려움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평화로 향하는 길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自由 liberté)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또 누구는
‘평등’(平等 égalité)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인간에게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참된 가
치이념인 이 말마디들은 프랑스혁명(1789)에 이르러 박애(博愛 fraternité)와 함께 크고 굵은 목소
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나누고
패권 다툼을 할 때, 자유가 마치 자유민주주의의 전유물인 양, 평등이 마치 공산주의의 마지
막 말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긍정하듯이, “자유 없는 평등은 거짓
이고, 평등 없는 자유는 위선입니다.”(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리」)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는 그 어느 것이든 한없이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고, 나아
가 인간이 인간인 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를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힘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유, 평등, 평화는 결코 우리 인간의 투쟁만으로 쟁취할 수 있는 어떤 것
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용서, 그리고 그것
을 깨달은 자들의 용서와 화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 신앙의 진리를 깊이 인식하고 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그 숭고한 가치들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 평등, 평화에 이르는 길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의 어리석음(1코린 1,18-25 참조)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정책도,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국가도 그 길에 있어 하나의 방책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이 가치들을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모여 ‘한없이 더’, ‘끝없이 더’ 추구한다고 해도 결코 완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느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만 그런 가치들을 더 완전하게 추구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악’을 불러올 소지가 큼니다. 왜냐하면 악의 발생이야말로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인 것을 ‘한없이 더’ 추구하다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현상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베른 하르트 벨테 「악의 문제」)

사랑하는 우리 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신부님들과 늘 고마운 수도자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백성들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넘어서 있다’는 말은 윤리·도덕적으로 혹은 가치·이념적으로 상위에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넘어서 있다’는 말의 뜻은 오히려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수가 되어 이웃의 잘못을 뒤집어쓰면서도 내 이웃을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인간으로서 있다는 말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인사로 말미암아 떨고 있던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靈 Spiritus)이 주는 참 평화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의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화 때문에 자유도 평등도 그 추구하는 바의 목표에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평화가 주는 기쁨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됩시다. 그리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가 그리 멀지만은 않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한 가슴 안고 용기 있게 강복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알렐루야!”

2019년 주님 부활 대축일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배기현)

유사종교의 잘못된 이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I

“천주교는 마리아교!”

가톨릭 신자인 우리 중 적지 않은 수가 이 말을 들어 보았거나 이 말에 관한 논쟁에 처해본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교회 내의 레지오 마리아, 파티마 세계 사도직(푸른 군대) 등의 마리아 신심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강한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가톨릭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즉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공경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이미 잘 준비해 두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교묘히 파괴하는 집단이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가 아닌 이른바 ‘어머니 하느님’, ‘하늘 어머니’가 존재하는 집단이다. 이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라고

성모님은 ‘어머니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다

도, 요즈음 교회들(가톨릭, 개신교)안팎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유사 종

교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퍼뜨리는 집단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1964년 ‘하나님의 교회 예수증인회(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창립자 안상홍은 또 하나의 이단 분파인 ‘안식교(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활동하다 분리되어 나와 자신의 분파를 창립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의 원리와 유사하게 안상홍 역시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온 하느님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이단 분파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에게 내려 이만희를 하느님, 재림 예수로 만들 듯, 하나님의 교회의 창립자 안상홍 역시 자신이 성령으로 이 시대의 하느님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유사 종교의 창립자(교주)들이 자신은 하느님의 힘(영)을 입어 하느님이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상홍 역시 같은 주장을 펼쳤으며 그의 육체는 영생하리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어느 인간도 죽어야 할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듯,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창립자도 영생할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1985년 죽음을 맞이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와 같은 신비주의 이단 분파의 유사 종교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예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 안상홍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집단을 이끌어 갈 새로운 사람을 미리 선택해 두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를 선택하기 위해 안상홍은 그에 걸맞은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 하느님’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안상홍을 하느님으로 믿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 하느님 때문이다.

안상홍의 생전에 그의 부인 외에 그와 가까이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장길자’이다.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주장하는 안상홍이 1981년 장길자라는 여인을 하느님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남자와 여자의 두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남자 하느님은 안상홍이고 여자 하느님은 장길자로서, 그녀는 어머니 하느님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누군가 물어온다면 가톨릭신자는 “압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일까 하는 혼란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이 왜 혼란인가 하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어머니 하느님’이 아니라, “성부의 영원한 아드님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제2위격”(가톨릭교회교리서, 495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음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순명으로 응답하여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자리에 교묘히 ‘어머니 하느님’(하늘 어머니, 어린양의 아내, 신부, 우리 어머니)을 두어 다가오기 때문이다.

유사 종교들이 주장하는 교묘한 말들이 흘러들어오면 어느덧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혼란이 생긴다. 그들은 우리가 들어보았음직한 이야기로 다가와 혼란을 야기한 후 그들의 주장을 믿음으로 가장하여 세뇌시키는데, 이는 하나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마리아와 같은 순명의 응답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도구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한낱 속임수일 따름이고, 우리 영혼을 어둠으로 이끄는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

(골로 2, 8)

“어른이 만든 아이들의 세상 5”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원래 뜻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적당한 반주는 하느님도 장려하신다>는 말입니다(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옛 말씀을 비꼬는 말로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중국 한나라 때의 책 ‘열녀전列女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 가족들이 처음에 묘지 근처에서 살았는데, 맹자가 장사 지내는 일을 흉내 내며 놀았습니다. 이에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 맹자가 장사꾼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결국 학교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를 본받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학군이 좋아야 한다는...). 이렇게 맹자 어머니가 아들 맹자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세 번 이사한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뜻을 비틀어서 부모들의 엇나간 교육열을 비꼬는 말로 씁니다. 아들을 위한 맹자 어머니의 좋은 환경 찾기 프로젝트를 치맛바람으로 몰아붙입니다. 서울의 좋은 학군을 찾기 위한 잦은 이사나 위장전입을 일삼는 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을 비판하는 말로 ‘맹모삼천지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방송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보여주려고 한 것은, 이 시대의 못난 어른들이 벌이는 학벌 만능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을 것입니다(그런데 결말이 좀... 이상하게 끝났다는...). 그런데 ‘투명사회 운동본부’의 통계는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영혼의 뜨락
교구 가톨릭 문인회

황광지 가타리나 • 수필가

눈만 들어도 꽃이 천지인 계절에, 나는 베란다에 있는 허술한 군자란 꽃과 눈을 맞춘다. 잎도 꽃도 참 볼품이 없다. 시원하게 번어난 잎이 아니고 오종종하게 몇 년째 그 키를 유지하며 버티는 느낌이다. 꽃대도 화려하게 쪽 내밀지 않았다. 꽃대를 겨우 조금 올려 잎사귀 속에 파묻히듯이 꽃이 달렸다. 한 꽃대에 여러 봉오리가 한꺼번에 피는 다른 군자란과 달리 한 봉오리씩 살금살금 피어났다. 그런데 끈질겼다. 정말 신통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피던 꽃이 4월이 되었는데, 아직 달려있다.

이 화분을 바라보며 나는 인연을 생각한다. 마산역 근처에서 개업의로 일하던 김 원장이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고 폐업에 들어갔다. 그와의 친분이 예사롭지 않았던 나는 병원 계단에 방치해서, 버려도 아깝지 않은 상태의 군자란 화분을 집으로 가져오는 걸로 마음을 달랠다. 풀이 좋지 않은 화분을 괜히 집에 들여 놓았나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게 보란 듯이 꽃을 피웠다. 해마다 거르지 않는 꽃을 보며 나는 잘 만나지는 못했지만 김 원장의 끈질긴 투병생활을 짐작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1코린9.22) 김 원장은 꼭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다. 의사였지만 자신의 차를 가진 적이 없었고 가난하게 지냈다. 마산역의 노숙자나 이주노동자를 친구처럼 대했고, 가정폭력피해자도 자매처럼 대했다. 개신교였지만 배타적이지 않고 주님 뜻이라며 천주교기관에 후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잘 통하는 크리스천이었다.

몇 주 전에 김 원장을 만났다. 그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6개월만 살려주시면 삶을 정리하겠다고 주님께 매달렸는데 6년째 아직 살아있다고 함박 웃었다. 여전히 격주로 항암치료를 받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지만, 주님께 찬양노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뻐했다. 빈말이 아니라 언제나 부르심에 따를 준비가 된 자세로 보였다.

감질나게 이어온 군자란 꽃이다. 겨울부터 눈 맞춤하며 사순절도 보냈고, 부활까지 맞았다. 좋은 각도로 꽃을 찍었다. 사진을 곁들여 김 원장에게 부활축하메시지를 보내며, 노래를 좋아하는 그가 올해도 목소리를 봉헌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알렐루야!

교구장 동정
 일 시 : 4. 28.(주일) 15:00
 장 소 : 창원문성대 실내체육관
 내 용 : 이주노동자 미사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 ◆
 일 정 : 4. 29.(월) 19:30
 장 소 : 마산 상남동성당
 주 최 : 민족화해위원회
 문 의 : 055.26.8201

교구·분당

- **소공동체장 연수 - 창원지구**
 일 시 : 4. 23.(화) 13:00
 장 소 : 사파동성당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신임교리교사 연수 2과정**
 일 시 : 4. 27.(토)~ 28.(일) 1박 2일
 장 소 : 마산 가톨릭교육관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2~3
- **청년성서 그룹봉사자 피정**
 일 시 : 4. 27.(토)~ 28.(일) 1박 2일
 장 소 : 마산 가톨릭교육관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65
- **신입, 복학신학생 부모피정**
 일 시 : 4. 28.(일)
 장 소 : 진동 요셉의 집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제438차 가나혼인강좌**
 일 시 : 4. 28.(일) 13: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 : 매주 (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 의 :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 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 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청년성가집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안내**
 가 격 : 1만5천 원
 문 의 : 청년부 055.249.7065
 카톡플러스친구 검색 : 청년성서모임 성가집 주문

위원회·기관·단체

- **교구 체나콜로(다락방) 4월 월기도 모임**
 일 시 : 4. 22.(월) 13:00~15:00
 장 소 : 상평동성당(미사준비)
 문 의 : 회장 010.9399.5454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4월 봉사자 월례회**
 일 시 : 4. 22.(월) 미사 14:00 월례회 15:00
 장 소 : 태평동성당
 문 의 : 010.3903.8234
-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 용 :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 간 : 3월부터 12월
 장 소 :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 의 : 055.247.5195~7

- **고성 천사의 집 자원봉사자 모집**
 기 간 : 상시(평일 및 주말)
 장 소 : 고성 천사의 집
 분 야 : 용접
 문 의 : 055.673.6609, 010.4557.3251
-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미사안내**
 베트남 공동체 미사(베트남어)
 일 시 : 매월 넷째 주 (토) 19:30
 장 소 : 대건성당 교육관 2층
 주 례 : 부반단(마르티노)신부
 문 의 : 대건성당 사무실 055.644.3323

수도회

- **살레시오회 성소모임**
 일 시 : 월 1회 (주일) 13:00~16:00(담당자문의)
 장 소 : 창원 젊음의집
 문 의 : 담당자 010.3894.1332
- **나자렛 예수 수녀회 일일 피정**
 일 시 : 상시 / 대 상 : 개인 또는 단체 20명
 장 소 : 나자렛 예수 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 의 : 010.9597.8981(양 에스텔 수녀)
- **살레시오 젊음의집 상담실 프로그램**
효소단식과 함께하는 힐링 피정
 일 시 : 4. 27.~28./ 5. 25.~26./ 6. 22.~23.
 (첫날 19:00~다음 날 16:00)
 대 상 : 몸, 마음, 영적 돌봄에 관심 있는 여성
 비 용 : 월 10만 원 (매월 선착순 12명 모집)
엄마랑 누이랑 가족모래놀이
 과 정 : 4월부터 7월(4/7, 11:00~12:30 시작)
 대 상 : 유치부, 초등부 자녀를 둔 가정
 비 용 : 5 만원
 ※ 개인, 집단, 가족, 부부 상담 수시 접수
 ※ 복사단, 첫 영성체반, 신심단체 피정 수시 접수
 문 의 : 055.255.8295

<p>온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병원장 강여화(데레사) 뇌졸중·수술 후 재활/ 암·노인·치매 병동 진주에서 15분, 사천 IC 3분 055.855.8557</p>	<p>(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출퇴근/일반여행/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VIP/공항투어/웨딩/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p>	<p>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상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p>	<p>Raphael Club 라파엘여행사 ◆ 6/4, 9/17 이스라엘, 오르단 10일 (28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 9/11 추석특선 아테리얼주 10일 (299만원) ◆ 6/23, 9/1 나가사키 4일 (94만 9천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p>
<p>베트남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부산 or 대구 출발 직항편 매일출발 / 전문 교구가이드 배치 1. 북부 순교성지 + 하노이/하롱베이 3박5일 (110만원~) 2. 중부 성모발현지 + 다낭/호이안 3박 5일 (110만원~) 3. 북부 + 중부 성지 핵심일정 포함 4박 6일 (130만원~) < 운량 및 신청단체 환면, 소규모 그룹 연립상시 모집, 별도일정 협의가능 > Four Chance 투어인스 이은준 요한 보스코 (마산 상계) 010-2992-4785</p>	<p>이안 디자인 디자인팀 ian21.com 문화사업팀 gil1004.com 디자인·출판·인쇄 각종출판물·소식지·보고서·키달로그 리플릿·팜플렛·삽화·일러스트 제작 055)264.4627, 010.9876.5000</p>	<p>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p>	

■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50세 이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 집 : 3월 중~6월/ 해당 지역 전화 요망

창 원 : 010.4542.0347

마 산 : 010.7315.6059

진 해 : 010.8583.4350

거 제 : 010.3807.1618

거 창 : 010.4630.2838

내서·함안 : 010.5006.6254

통영·고성 : 010.2836.7720

산청·함양 : 010.5911.8792

진주하대동 : 010.3009.0650

진주찰암동 : 010.2776.2414

진주신안동 : 010.8831.3311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비 용 : 64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문 의 : 송진욱 신부 010.3005.9028

■ **부산교구 성령대회**

일 시 : 4. 27.(토) 09:00~18:00

장 소 : 부산가톨릭대학교

강 사 : 임문철 신부(제주교구)

진홍장 타데오(전 삼성산 회장)

미 사 : 손삼석 요셉 주교 / 지도사제단

문 의 : 055.382.9465

■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

한국면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7:00

문 의 : 담당자 010.9992.3443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매주 (수)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故 이재철 아드리아노 신부 13주기 추도미사

일 시 : 4. 28.(주일) 14:00

장 소 :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

2차 헌금 안내 ::

산불 피해로 인한 강원도 지역민의 아픔에 전 교구민의 따뜻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차 헌금일 : 4. 28.(주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 신양대학 심화과정 신청 안내 ::

일 정 : 매월 둘째 주 (토) 13:00~17:00

(5/18, 6/8, 7/13, 9/21, 10/12, 11/9)

장 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대 상 : 신양대학 졸업자 및 관심있는 모든 신자

과 목 : 1. 하느님 계획안에 있는 인간 사랑

(몸 신학) (강형섭 신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장)

2. 성경과 예수님의 발자취

(전광진 신부, 들꽃마을 민들레 공동

체 및 노인복지센터 원장)

수강료 : 12만 원 (교재비 포함)

신 청 : 수시접수 중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담당자 010.5034.6168

기 타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 정 : 4. 22.~24./ 5. 2.~5./ 5. 8~10./

5. 14~17./ 5. 19~21./ 5. 23~26.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후기)

마 감 : 5. 9.(목) / 월, 목 야간수업

대 상 :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 택 : 50% 장학금(학생 전원)

문 의 : 053.660.5253/010.6563.0409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4. 22.(월) 19:00	월남동성당	그리스도안의 변화	한우조(베드로, 성령새신봉사회)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5072-5612
창원지구	4. 22.(월) 19:00	반 송 성 당	소개세미나	고영민(안드레아, 삼성산)	안찬모 신부(이나시오, 삼위일체수도회)	010-4553-7425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회)		010-6667-7809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마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010.6299.1137

savin
 성악 스튜디오
 T.070.4384.8730
 예 중, 예 고 음 대 / 입 시 반
 취 미 일 반 소 그 룰 (3 명)

blog.naver.com/franz32
 조 현 울 프란체스코
 마산회원구 양덕1동 주민센터 맞은편 2층

품 격 순 례 **분 도 여 행 사**
 www.bundotour.com

5월 24일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	13일 415 만원
6월 12일	성모발현지 성지순례	13일 399 만원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피스키 생야 미시

- 제 1 독 서 창세 1,1-2,2
 화 답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제 2 독 서 창세 22,1-18
 화 답 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제 3 독 서 탈출 14,15-15,17
 화 답 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제 4 독 서 이사 54,5-14
 화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제 5 독 서 이사 55,1-11
 화 답 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제 6 독 서 바룩 3,9-15,32-4,4
 화 답 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제 7 독 서 예제 36,16-17,18-28
 화 답 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서 간 로마 6,3-11
 화 답 송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복 음 루카 24,1-12
 영 성 체 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낮 미시

- 입 당 송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본 기 도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 제 1 독 서 사도 10,34-37,43
 화 답 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 제 2 독 서 콜로 3,1-4 <또는 1코린 5,6-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 복 음 요한 20,1-9 <또는 루카 24,1-12>
 영 성 체 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